

# 20세기 패션 속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의 역사 : 패션과 미래 이미지의 상관성 연구

김성복

— <目 次> —

- I. 서론
- II. 미래담론의 역사적 맥락
- III. 패션과 미래담론
  - III-1. 유토피아론
  - III-2.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
- IV.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 IV-1. 이국적 유토피아: 푸아레의 동양풍 패션
  - IV-2. 기계시대의 유토피아: 미래파 패션
  - IV-3.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샤넬의 '가난한 룩'
  - IV-4. 공상과학적 우주패션
  - IV-5. 미래학자 건립
- V. 결론 및 제언

## I. 서 론

19세기말, 미래에 대한 상상과 기대로 막을 올렸던 20세기도 새로운 밀레니엄의 역사 앞에 과거의 한 페이지로 저물어 가고 있다. 패션이라는 문화 현상은 20세기 물질문명 하에서 너무나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문화연구에서 가볍게 여겨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패션은 중세이래 현실에 대한 투영이자 도전으로서 끊임없이 미래를 예견하는 중요한 문화적 지표가 되어왔다. 특히 과학물질문명의 환상과 함께 시작되었던 20세기는 과거와 다른 이상적 미래를 소망하며 미래에대한 이념이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다. 이와 더불어 패션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한 창조성을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록을 발전시켜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패션이 도전했던 것은 무엇이며 갈망했던 미래는 어떤 것이었나? 달리 말해 사람들은 패션을 통해 과연 어떠한 미래상을 꿈꾸면서 지난 20세기를 정의해 왔는가? 아마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미래 패션에대한 조망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다뤄야할 주제일 것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며 패션계에서는 새로운 미래 패션에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본 연구는 현실의 투영이자 도전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예견해 온 문화적 지표인 패션이 20세기에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담론 속에 표현되어 온 미래의 이미지와 패션을 살펴본 후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미래지향적 패션의 예를 분석하여 실제 패션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미래담론 속의 패션과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한다. 이로써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21세기 패션문화의 지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미래담론의 역사적 맥락

인류의 가장 오랜 열망 중의 하나는 미래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것으로 유사 이래 인간은 호기심과 두려움, 희망을 갖고 미래를 예견하고자 노력해왔다. 역사상 최초의 미래 모습 기록이 고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이를 뒷바침해준다.<sup>1)</sup> 많은 종교가 갖고 있는 내세관 역시 이러한 인간의 미래세계에대한 소망의 투사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대한 담론을 통해 인간이 그러한 미래에대

1) 하인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서울: 고도, 1995), 16.

한 이미지와 그에 대한 인식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앙드레 클레망 데쿠플레 A.C. Decouflé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점술, 예언, 유토피아론, 공상과학 소설, 미래학 등이었다고 설명했다.<sup>2)</sup> 점술과 예언은 주로 근대 과학시대 이전, 인간이 미래를 접근하던 방식으로 신비주의적 초자연적 담론이다. 이는 원시사회부터 마술과 종교의 영역으로 여겨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시행되었다. 즉, 이들은 인간 태고적부터 있어왔던 특별한 감각에 의존한 미래에 대한 단순한 진술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인간의 숙명적 미래관을 대표한다.

유토피아론은 르네상스 시대에 지리적 발견과 세계에 대한 정신적 확장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토머스 모어 Thomas More는 1507년 아메리고 베스푸치 Amerigo Vespucci의 여행기에서 영감을 받아 이상적 사회 정치 소설인 <유토피아 Utopia>(1516년)를 발표해 새로운 미래담론의 형태인 유토피아론을 탄생시켰다.<sup>3)</sup> 원래 '유토피아'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어디에도 없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마소 캄파넬라 Tommaso Campanella의 <태양의 도시 City of the Sun>(1602년)와 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The New Atlantis>(1626년) 등의 유토피아 소설 속에서 미래는 지리적 위치가 모호한 신비한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이상사회의 외양과 정치적 형태, 생활방식 등을 통해 묘사된다.<sup>4)</sup> 이후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18세기 유토피아는 스위프트 Swift가 쓴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1726년)속의 이성이지배하는 휴이념 Houyhnhnms섬에서 보여지듯 모든게 완벽하여 진보와 발전의 개념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절대불변의 세계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9세기에는 에드워드 벨라미 Edward Bellamy의 <과거를 돌아보며 Looking Backward>(1887년)와 윌리엄 모리스 William Morris의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부터 온 뉴스 News from Nowhere>(1891년)처럼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완벽하고 질서있는 사회와 혁신주의에 중점을 둔 미래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유토피아들이 등장했다.<sup>5)</sup> 당시의 유

- 
- 2) A. C. 데쿠플레, 서기 2000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반역사" (파리: Gallimard/Julliard, 1975, pp. 14-40), 제인 용, Christophe Canto and Odile Faliu, *Le futur antérieur, Souvenirs de l'an 2000*, 김승욱(역), <인간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해 왔는가>(서울: 자작나무, 1997), p.15.
- 3) Aileen Ribeiro, "Utopian Dress," *Chic Thrills*, Juliet Ash & Elizabeth Wilson(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225.
- 4) Christophe Canto and Odile Faliu, *Le futur antérieur, Souvenirs de l'an 2000*, 김승욱(역), <인간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해 왔는가>(서울: 자작나무, 1997), p.36.
- 5) Christophe Canto and Odile Faliu, 위의 책 p.39.

토피아 소설들 중에는 오히려 이상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을 묘사한 것들도 있어서 유토피아론에 반유토피아론이 더해졌다. 반유토피아론은 행복한 유토피아론과는 반대로 사회의 부조리와 잔인성을 고발하면서 미래사회를 염세적으로 표현했다. 20세기들어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가 소설들 속에서 많이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1932년)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1949년)는 무서운 집단적 획일화 사회의 도래를 예언하며 경고하는 반유토피아론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식과 이성의 진보에 가치를 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태동은 신학의 자리를 과학으로 대체하고 18세기말 영국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서구사회는 가속화된 산업화와 일상화된 신기술 발달과 함께 과학물질문명을 인간의 우선적 행복 조건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제 미래는 더 이상 신비한 신의 영역이 아니며 인간이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세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를 다루는 공상과학 소설들이 1850년대 과학 기술적 바탕 위에서 탄생해 대중이 보다 쉽게 미래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가 되었다.<sup>6)</sup> 공상과학 소설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서술한 크리스토프 칸토Christophe Canto와 오딜 팔리우 Odile Faliu에 따르면 <해저 이만리20,000 Leagues Under the Sea>(1869년)의 저자 쥘 베른Jules Verne이 상상력과 과학적 이성을 조화시켜 미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과학소설가'라고 한다.<sup>7)</sup> 또한 <타임 머신The Time Machine>(1895년)의 저자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는 베른과 함께 20세기초 미래 소설들과 1929년 등장한 본격적 '공상과학 소설'의 기초를 마련해 후일 우주개념에대한 혁명적 변화를 반영한 공상과학 소설의 황금시대를 형성케했다고 한다.<sup>8)</sup> 이로써 작가들은 양자 물리학이나 상대성 원리와 같은 20세기 혁신적 과학 이론을 이용해 한층 풍요롭고 환상적인 시공적 상상을 미래세계를 향해 펼치게 되었다.

미래학은 과거 개인적 신통력에 의존한 예언 대신에 확실한 자료와 과학적 논리에 근거해 가능성있는 미래의 모습을 가시화하고 대안과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미래학은 과거의 미래담론과 달리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는 학문으로 단순히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는데 만족하는게 아니라 대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학문은 1943년 독일학자 오싯 플레히트하임

6) Christophe Canto and Odile Faliu, 위의 책 pp.19-28.

7) Christophe Canto and Odile Faliu, 위의 책 p.23.

8) Christophe Canto and Odile Faliu, 위의 책 pp.23-36.

Ossip K. Flechtheim이 '미래학Futureologie'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출발되었다.<sup>9)</sup> 플레히트하임이 미래예측에 관한 체계를 규명한 후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양한 미래예측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여 미래학을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현재까지 개발된 미래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천재적 미래예측'은 천재는 미래에 대한 예견력과 분석력 등이 뛰어나다는 가정하에 천재적 선형성에 의존한 방법이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지만 미래예측의 지적 기반과 근거를 제시해주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방법으로 주로 공상과학 소설가와 작가, 유토피아 창안자, 고도의 통찰력과 탁월한 식견을 겸비한 과학자 및 학자가 이 예측의 주체가 된다. 둘째, '추세의삼법'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추세를 통계자료를 통해 추적해 그 특성을 규명하고 미래에 투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는 과거 추세의 특성을 그대로 미래에 투사하는 단순한 선형적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래역사'로 과거 역사에 대한 깊은 조예, 정확한 현재 분석, 주의 깊은 상상력, 명확한 시간 흐름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 역사를 구성하여 현실적이고 가능한 가설적 미래를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넷째, '의사결정나무'는 결정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대안적 접근을 택했을 때 나타나게 될 잠재적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주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다섯째, '미래바퀴'는 한 영역의 사건을 다른 영역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여 주어진 사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인과적 사건들을 탐색, 규명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델파이 조사방법'은 고대 회담신화 중에서 아폴로신이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을 했다는 델파이 신전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한 사람의 예측보다 여러 사람의 두뇌를 합친 게 더 정확하다는 원칙에 근거해 회의, 토의, 위원회 등 면대면 집단협의 방식을 통해 민주적 의견수렴 방법을 따르는 조사법이다. 일곱째, '시나리오 작성법'은 다양한 질적, 양적 미래예측 방법에 의해 대안적 미래가 설계되면 여기에 미래에 대한 실질 내용을 부여하는 기재로 미래의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표점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를 인과관계 탐색을 통해 가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여덟째, '교차영향분석법'은 델파이 조사방법의 연장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 상호간의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발생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아홉째, '체계분석'은 공공정책 분야의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의 틀을 마련하는데 증추적 역할을 해온 방법으로 조직된 사회실체로서 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다양한

9) 전득주 의 공저, 미래학 입문 (서울: 평민사, 1992), p.73.

10) 하인호, 위의 책, pp.185-230.

관점에서 깊이있게 탐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열번째, '모의실험법'은 모의실험을 통해 관심있는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단순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예측해 보는 미래예측 방법으로 인간사회와 집단에 내재된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단순화하려는 사회과학연구에서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상에서 미래에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은 원시시대부터의 점술 및 예언, 르네상스시대의 신비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된 유토피아론, 18세기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한 미래세계의 상상을 그린 공상과학소설과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단순한 상상과 동경을 넘어 과학적 미래예측 방법론을 통해 미래의 통제와 조절을 꾀하는 미래학까지 미래담론의 발달사를 살펴보았다.

### Ⅲ. 패션과 미래담론

앞에서 살펴본 미래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은 가상적 미래 세계를 상징적 이미지와 이성적 설득을 통해 표현한다. 이때 패션은 서술되는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하기 위해 예외없이 제시되어지곤 했다. 다음에서는 미래담론의 종류에 따라 패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단, 구체적 미래상의 제시라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진술인 점술과 예언, 그리고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중점을 둔 미래학은 제외하기로 한다.

#### Ⅲ-1. 유토피아론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이상적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라 약간의 변화만 존재하는 거의 동일한 옷을 입는 것으로 그려져 민주적 패션을 표방함을 보여준다. 이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청결과 평등성과 실용성에 기초한 의복을 입는다.<sup>11)</sup> 또한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에서도 이상향의 사람들은 남녀가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스타일의 토가Toga를 입어 실제로 동일한 의복을 착용한다.<sup>12)</sup> 이곳에서는 화장이나 높은 굽의 신발같은 인공적 조작을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패션의 민주적 평등성과 함께 자연주의적 미의식을 사회 윤리와 결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계

11) Aileen Ribeiro, 위의 글, p.225.

12) Aileen Ribeiro, 위의 글, p.226-7.

몽주의시대가 상상한 유토피아에서도 검소하고 건강한 실용적 의복을 보여준다. 루이-세바스티앙 메르시에 Louis-Sébastien Mercier의 <서기 2440년, 결코 이를 수 없는 꿈 The Year 2440, A Dream of What Will Never Be>(1770년)에서 미래 패션은 신체의 자유가 중시된 적당한 크기의 소매를 가진 조끼에 가운 형태의 외투와, 보온을 위해 맨 허리띠에 긴 레깅스와 같은 스타킹과 편한 신발로 서술된다.<sup>13)</sup> 따라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사치를 부정하고 자연주의적 미학에 근거한 실용적이며 평등한 의복생활을 미래사회의 전형으로 제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를 배경으로 오히려 이국적인 사치스런 의복을 통해 그려지고 있어 색다른 유토피아상을 제시한다. 이곳의 통치자는 흰 리넨 가운과 검정색 로브와 보석달린 장갑을 끼고 복숭아색 벨벳 신발을 착용하며 보석으로 치장된 마차를 타고 행차한다. 이 통치자를 호위하는 수행원들은 흰색 새틴의 헐렁한 종아리 중간 길이의 긴 코트를 입고 흰 실크 스타킹과 푸른 벨벳 신발을 신고 깃털달린 모자를 쓴다. 또한 남성들은 멋진 담청색 모직으로 만든 소매가 넓은 가운을 입고 터번을 쓰는 것으로 묘사되어 사치스럽고 환상적인 동양풍의 이상향이 표현되고 있다.<sup>14)</sup>

19세기 유토피아는 고전주의적 미학에 기초한 패션을 제안하기도 한다. 벨라미의 <과거를 돌아보며>에서는 당시 19세기말 패션인 버슬 스타일의 인공적 과도함과 대조적인 자연스런 인체미를 표현하는 고전적 스타일을 제안한다. 따라서 2000년 보스턴에서 깨어난 주인공 줄리엣 웨스트가 본 미래의 드레스는 여성적 우아함을 강조한 적당한 주름이 있는 아름다운 옷으로 묘사된다.<sup>15)</sup> 또한 모리스의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부터 온 뉴스>에서 남성복은 중세 튜닉tunic과 수르코surcoat와 호즈hose로, 여성복은 고전적 의상과 14세기 중세의 단순한 형태의 옷으로 그려진다.<sup>16)</sup> 20세기초 웰스의 <모던 유토피아> 역시 평화로운 세계를 중세와 르네상스가 혼합된 고전적 의복을 착용하는 사회로 상상했다. 따라서 웰스의 이상향은 남녀가 모두 기사가 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이며 남성 기사는 보라색 띠가 있는 흰색 튜닉과 레깅스를 착용하며 여성 기사는 이와 유사한 복장, 또는 곱고 부드러운 모직의 하이웨이스트 드레스를 입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입혀졌던 로브를 연상케한다.<sup>17)</sup>

13) Aileen Ribeiro, 위의 글, p.229.

14) Aileen Ribeiro, 위의 글, p.227.

15) Aileen Ribeiro, 위의 글, p.230.

16) Aileen Ribeiro, 위의 글, p.231.

17) Aileen Ribeiro, 위의 글, p.231.

한편 1932년에 출간된 헉슬리의 풍자적 소설, <멋진 신세계>는 사실상 과학의 노예가 되어버린 반유토피아적 미래를 개별적 패션이 부정되는 사회로 묘사했다. 역설적 제목인 <멋진 신세계>속의 미래의 인간들은 계급에 따라 유니폼을 입어 알파 어린이는 회색을 입고 감마 어린이는 녹색을, 델타 어린이는 카키색을 입고 어른들도 정해진 옷을 입는다.<sup>18)</sup> 또한 1949년 오웰의 유명한 예언적 소설 <1984년> 역시 패션이 제거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로 미래를 표현하면서 사회적 이념과 패션 존재여부의 상관관계를 암시해준다. 오웰이 제시한 당원의 유니폼인 푸른색 작업복은 대중의 개성을 제거한 기능성 위주의 전체주의 가치관을 표현한 억압적 의복인 것이다.<sup>19)</sup>

이렇듯 행복한 유토피아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그려진 미래 패션은 민주적 평등성에 기초한 실용적 패션이나 이국적 이상향에 기초한 오리엔탈 패션으로, 또는 이상적 과거 문명에 대한 동경에 기초한 고전주의적 패션으로 그려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비판적 반유토피아 사회는 전체주의 이상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집단적 색상 코드와 유니폼으로 묘사되면서 개인을 위한 패션의 존재를 부정한다.

### III-2.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

로드 리튼 Lord Lytton이 1871년 쓴 <미래의 인종 The Coming Race>은 거대한 지하세계를 배경으로 놀라운 공상과학적 의상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미래 인간은 '거대한 새의 깃털'로 만든 한 쌍의 큰 날개를 어깨에 금속 스프링으로 고정해 부착한 옷을 착용한다. 남성은 튜닉과 얇은 섬유 의 레깅스를 착용하며 여성은 결혼상태에 따라 다른 색상의 로브를 입는다.<sup>20)</sup> 이로써 리튼은 날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과학적 고안에 의한 미래 패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세기에 영화의 발명은 공상과학 영화 장르를 탄생시켜 미래 세계를 사실적인 시각 이미지로 대중에게 제공해 주었다. 최초의 공상과학 영화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는 1926년 프리츠 랑 Fritz Lang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미래를 노동과 유흥이 구분된 이중적이고 위계적인 세계로 묘사했다. 아르 데코풍의 거대한 기계문명적 세트를 배경으로 유한계급이 사는 지상세계 '메트로폴리스'의 정원에서 즐기는 행복한

18)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허창수(역), 멋진 신세계(서울: 고려원 미디어, 1996)

19) George Orwell, 1984, 1984년, (서울: 문예출판사, 1999)

20) Aileen Ribeiro, 위의 글, p.233.



여성은 홀터halter 넥크라인의 짧은 원피스를 입고 주인공 남성은 스포티한 흰색 승마 바지에 넥타이를 맨 흰색 셔츠를 입고 있다. 반면 지하세계에서 기계의 부속품처럼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은 어두운 색의 기능적 유니폼을 입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두 사회의 평화적 화해의 중재자인 노동자의 딸 마리아는 허리선이 낮은 인체에 적당히 맞는 종아리 길이의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1920년대 스타일과 절충된 중세 드레스를 연상케한다. 여기에서 과학자 룩트방이 발명한 인간의 노동력을 대치할 지치지 않는 기계인간 로봇은 비인간적이며 위험한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18세기 이래 과학 만능적 사고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준다.

1960년대 우주와 미래에 대한 증폭된 관심 속에 발표된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2001: A Space Odyssey>(1968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패션으로 미래를 그려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착륙에 성공하기 1년 전에 발표된 이 영화는 우주여행을 일상 생활처럼 하게 될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팬츠 수트, 우주 비행모와 유사한 둥근 헬멧형의 모자로 우주 비행기 여승무원의 복장을 제안했다(그림 1). 이 영화의상은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하디 에이미스Hardy Amies가 담당 한것으로<sup>21)</sup> 1960년대에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가 유행시킨 미래 지향적 패션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영화의상도 당시의 시대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흥행에 성공한 뫼비우스Luc Besson감독의 영화 <제5원소The Fifth Element>(1997년)는 프랑스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 Jean-Paul Gaultier의 상상력이 발휘된 미래 패션을 선보여 신선한 미래관을 표현해 주었다. 이 영화는 2259년의 뉴욕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괴행성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구해줄 제5원소를 찾아 모험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여주인공인 유전자 합성의 절대인간 릴루는 최소한 가릴 곳만 겨우 가린 이른바 '탄력 봉대 옷'을 입고 등장해 미래 여성 전사의 기능적인 패션을 집약해 보여준다(그림 2). 그러면서도 이 디자인은 봉대로 감싸인 고대 이집트 미라의 부활을 보는 듯한 연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기적인 역사적 맥락을 암시하고 있다.

21) Edward Maeder, *Hollywood and History: Costume Design in Film* (London: Thames and Hudson, 1987), p.100.

## IV. 20세기 패션사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 IV-1. 이국적 유토피아 : 푸아레의 동양풍 패션

패션의 역사를 돌아볼 때 19세기말 서구인들이 새로운 세기의 대안으로 찾아낸 이상향은 다름 아닌 동양, 비서구 세계였다. 이는 대단히 역설적인 사실로서 타자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적 투사의 결과일 것이다. 이로써 서구 패션은 산업 혁명 이후 점차 기계적 물질 문명 속에 잃어가는 인간 본연의 정서를 보상 받기라도 하듯 20세기초 기계 미학과 맞물려진 부드럽고 장식적인 동양풍의 패션으로 향해갔다. 이러한 동양풍 패션은 1909년 세르게이 디아글리에프Serge Diaghilev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이 기폭제가 되어 1910년대 서구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sup>22)</sup> 당시 발레단의 무대의상을 담당했던 레온 박스트Leon Bakst는 동양의 민속 의상에 기초한, 인체를 편안히 감싸고 드러내는 원색적 색상의 부드러운 의상으로 서구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그림 3). 서구인들의 눈에는 당시 입혀지고 있던 경직된 빅토리안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박스트의 무대의상은 미지의 세계를 위한 환상적인 미래적 패션감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탁월한 흥행 감각의 소유자였던 프랑스 디자이너 폴 푸아레Paul Poiret는 러시아 발레단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동양풍의 패션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17세기 베이컨이 그의 유토피아 소설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통해 상상한 이국적 이상향이 푸아레에 의해 선풍적인 동양풍 패션으로 현실화되었다. 푸아레가 디자인한 동양적 로브는 이전에 유행했던 딱딱한 콜셋에 의한 모래시계 실루엣 드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패션이었다. 오히려 허리 부분이 볼록한 그의 호블 스타일hobble style은 인위적으로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해주는 속옷인 코르셋으로부터 인체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20세기 신여성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주었다. 터키식의 터번에 깃털장식, 튜닉 아래에 호블 스커트를 차려입은 푸아레의 여인들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화신처럼 파리의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다(그림 4). 사실 서구의 여성 패션은 르네상스 이래로 인위적 형태를 추구한 결과, 코르셋과 같은 기능성 속옷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인체의 자연미 보다는 인체의 억압을 통한 인공미를 이상화해 왔다. 이러한 인체 억압의 오랜 서구 전통은 푸아레와 같이 과거 서구 역사와는 색다른 이국적 신세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22) Amy de la Hay, Fashion Source Book(New York: Welfleet Press, 1988), pp.34-7.

이로써 20세기 미래 패션은 동양풍을 타고 서구 현대 패션의 서막을 장식하게 되었다. 동양풍의 패션은 오랜 역사를 통해 굳게 형성되어온 서구 전통 패션의 틀을 깨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사라짐으로써 서구 패션계에 대표적 이상향의 표현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1999년 봄/여름 시즌을 겨냥한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컬렉션에서 발표된 올리브 그린색의 수트는 중국 인민복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동양풍에 대한 재해석이었다(그림 5). 이는 동양풍이 여전히 서구인에게 애용되고 있는 영원한 미래의 패션 주제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1999년 봄에 뉴욕의 패션대학 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갤러리에서 열렸던 <중국의 멋China Chic> 전시회는 또 다시 찾아온 세기말의 시점에서 어떻게 서구 패션계가 미래의 이상향을 동양과 연관시켜 투사하고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 IV-2. 기계시대의 유토피아 : 미래파 패션

1910년대 열병같이 휩쓸었던 동양적 이국 취향의 패션계와는 별개로 서구 예술계에서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들을 찾아 여러가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 1909년 시작된 이탈리아의 미래파 운동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20세기 문화의 전형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다. 미래파에게 미래는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실체이자, 영속적 창조이며 현실에 있어서 단 하나 유일하고 진정한 차원"<sup>23)</sup>이었다. 또한 그들이 창조하고자 했던 미래는 모든 전통적 기존 형식과 질서에 대치되는 자유와 즉흥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감각의 동시적 즉흥성을 해방시키고 과학 문명이 창출해낸 힘과 속력이 지배하는 세계, 즉 새로운 기계적 가치관에 기초한 유토피아적 세계였던 것이다. 산업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와 달리 미래파의 성지로서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고답적 전통의 무게로 인해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와 이탈리아에서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새로운 문화사이에 뚜렷한 대비가 발생했고, 낡은 문화에 대한 반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이탈리아의 문필가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는 1909년 2월 파리의 <르 피가로Le Figaro>지에 "미래파 선언문"을 발표하고, 미래를 전통적 형식에 대해 거부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세계로 규정하였다. 마리네티의 혁명적 메시지는 가속화된 산업화와 미디어의 발달로 구세대의 문화에 만족

23) Giovanni Lista, Futurism, 정진국(역), 미래파(서울:열화당, 1988), p.8.

할 수 없었던 신세대를 매료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탈리아의 미래파가 개인적이며 지적인 동시대 프랑스의 문화 운동인 입체파와 달리 호전적인 정치 사회적 성향이 강했던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이탈리아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급박한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미래파들이 추구했던 미래는 화가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의 회화에서 표현되었듯이 테크놀로지에 의한 속도와 힘의 세계였다(그림 6). 점차 일상생활 속에 확산되어가는 역동적인 기계 문명은 인간의 지각과 사고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멋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엄청난 속도의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는 마차를 타고 가며 감상하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창밖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는 물체의 상을 산산히 부수고 파편화해 추상적 형태로 전환해 버렸다. 이때 한눈에 사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말해주듯 상대적 속도감은 한 물체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엄청난 상대적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사진기는 분절된 움직임 속의 사물을 분석하는 기계적인 눈을 제공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이탈리아의 미래파는 기계적 힘과 속도감에 기초한 과학적 세계관의 의해 세상을 과거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관찰하고 인식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파 작가들은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명백한 표명으로써 자신들의 미래관을 표현하는 많은 새로운 오브제들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 중 패션은 미래의 '멋진 신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실천적 도구로써 이른바 미래파 이미지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미래파가 금세기 초에 시도한 모든 개혁운동은 20세기의 룩look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 운동의 주창자인 마리네티는 패션을 사회적이며 미적인 취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체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에게 패션이란 "속도에 대한 새로운 종교-도덕성의 기본적 요소"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패션을 신문화를 만들어내는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해 패션의 혁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sup>24)</sup> 미래파는 인간이 사는 방식의 변화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여기에서 패션의 개혁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미래파 선언문"에서 드러나듯, 패션의 개혁에 대한 제안은 미래파의 이념과 실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4) Pontus Hulten, Futurism and Futurisms(New York: Abbeville Press, 1986), p.454.

특히 미래파 패션에 많은 공헌을 한 발라는 미래의 과학 기계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시인의 복장으로 소위 "의복 기계 Clothing Machine"를 추구해서 역동적인 문양과 색상의 패션을 창안해내기도 했다.<sup>25)</sup> 발라는 1912년부터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가 회화에서 추구했던 역동성을 옷감과 의복 디자인에 반영하려는 시도였다. 그의 미래 패션에 대한 철학은 1914년 발표된 "미래파 남성복 선언문 Futurist Manifesto of Men's Clothing"에 잘 표명되었다. 그는 미래의 옷은 "반드시 비대칭적이며 민첩하고 단순하고 간단하며 위생적이며 발랄하고 계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역동적인 의복은 무채색과 대칭적 재단의 배제를 통해 생산된다"고 주창했다.<sup>26)</sup> 예를 들어, 1914년 발라가 스케치한 미래파 남성 수트는 전체적으로 대단히 기하학적이며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그림 7). 그러나 것이 없는 이 재킷의 비대칭적 여밈과 한쪽은 사선이고 다른 한쪽은 수평을 이루는 소매와 바지의 단은 의도적으로 비대칭적 조형성을 강조한다. 역동적인 사선이 반복되는 옷감의 문양 역시 속력의 미학을 표현하고 있으며 화려한 보색을 사용한 색상은 만화경처럼 시시각각 변하며 다양한 색광을 발하는 패션을 창조해준다. 발라의 이 재킷 디자인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결정된 생활 방식과 사회의 가치관을 옷에서의 역동적 조형어법을 통해 해석한 결과였다. 또 다른 미래파 화가 포르투나토 데페로Fortunato Depero도 1910년대 중반부터 미래파 연극을 위한 기계적인 무대의상을 창조하면서 화려한 색상의 역동적 조끼 디자인을 비롯한 현대적 남성복을 디자인 했다(그림 8).<sup>27)</sup> 이렇듯 미래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미래 패션의 특성과 드레스 코드dress code에 대한 처방전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엔리코 크리스폴티Enrico Crispolti가 그의 글 "패션에 대한 미래파 재건 The 'Futurist Reconstruction' of Fashion" 에서 언급했듯이 발라, 데페로와 어네스토 타야트 Ernesto Thayaht 등의 미래파 패션 작업들은 과거 패션이 지닌 허식과 번덕스러움과 비합리성을 벗어버린 합리성과 필연성의 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20세기 생활 방식의 요구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패션의 기초 설립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미래를 위한 문화 운동'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단순히 패션의 개량 차원을 넘어 이념적 함의를 통해 감성과 상상력을 포함하는 패션의 잠재적 역할을 일깨워주었다. 즉 미래파가 표방한 새로운 환경을 전제로 창조된 미래파 패션은 사회적 의미를 함축해 전달하

25) Pontus Hulten, 위의 책, p.453.

26) Pontus Hulten, 위의 책, pp.453-4.

27) Enrico Crispolti, "The 'Futurist Reconstruction' of Fashion," Art/Fashion, Germano Celant(ed.) (Milan: Skira, 1996), p.48.

는 시각적 매체였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인류학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역동성과 동시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했다. 당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빠른 의사소통의 속도와 인식의 동시성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파는 위생적이며 기능적인, 즉 실용성이 강한 새로운 유형의 옷을 창조함으로써 20세기초 급진적 패션 창조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다. 새로운 사회가 추구하는 민첩성과 자유를 향한 행동의 기본 전제가 패션임을 간파한 미래파는 그들의 행동 강령과도 같이 새로운 패션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미래파가 제시한 집합적인 이념과 상상력이 점차 일상 생활 속의 패션으로 스며 들어감에 따라 그들의 기계시대적 유토피아 투사는 현실과의 거리감을 좁혀 갔고, 마침내 현대 패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 IV-3.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샤넬의 '가난한 록'

기계적 이상주의 이념에 근거한 미래파 패션이 20세기초 문화 예술계의 전반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을 무렵, 본격적인 20세기 미학을 반영한 혁신적인 패션의 대중적 보급은 작고 마른 소년 체형의 디자이너 코코 샤넬Gabrielle[Coco] Chanel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아원 출신의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졌던 샤넬이 시도했던 것은 아마도 '패션을 통한 기득권 세계에 대한 사회주의적 전복'이었을지 모른다. 에이미 스피들러Amy M. Spindler가 주장했듯이 샤넬은 확실히 기존의 틀에 대한 도전과 해체를 통해 현대 패션의 초석을 이룬, 이른 바 '해체주의 패션의 원조'였다.<sup>28)</sup>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혁신적인 샤넬의 용기와 모험심과 발명 정신은 전통적 격식을 중시하는 파리의 오트쿠튀르haute couture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20세기를 지배할 패션의 개념을 제시했다. 1971년 샤넬이 전설적인 생애를 마감했을 때 패션 잡지 <보그 Vogue>는 "그녀[샤넬]의 굴하지 않는 정신과 논리와 통찰력은 세계의 여성을 18세기로부터 20세기로 곧장 몰고 왔다" 라고 간단명료하게 평가했다.<sup>29)</sup> 이렇듯 샤넬은 도래하는 20세기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고 표현한 예지력의 소유자로 18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19세기 패션을 무려 200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변화시킨 급진적 혁신자였다. 그녀의 패션 감각은 실루엣, 소재, 색상 등 옷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예를 들어, 20세기 내내 클래식으로 애용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는

28) Amy M. Spindler, "Coming Apart," The New York Times(Sunday, July 25, 1993).

29) "Chanel, 1883-1971," Vogue (February 15, 1971) p.76.

울저지로 만든 단순한 원통형의 검정 드레스로 그녀의 혁신적 모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9). 1926년에 선보인 이 단순한 드레스는 전통적으로 서구의 상복 색인 검정을 20세기의 대표적인 우아한 정장의 색상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값싼 내복용 옷감인 저어지jersey를 고급스런 드레스 소재로 채용한 그녀의 신선한 안목은 단순한 원통의 형태와 더불어 캐주얼하고 기능적인 모던한 생활 방식의 감수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박물관 큐레이터인 리차드 마틴 Richard Martin은 샤넬의 '리틀 블랙드레스'를 "사회적 반전과 정치적 변화를 꾀한 의복 취향의 원형"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sup>30)</sup>

당시 부르조아의 호사 취향적 '오리엔탈 룩'의 선봉장이었던 푸아레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도전해오는 샤넬을 "가난한 룩poor look"으로 부자를 점원처럼 보이게 하는 디자이너"라고 비난하기도 했다.<sup>31)</sup> 하지만 그녀의 플라스틱 모조 보석과 함께 '리틀 블랙드레스'와 샤넬 수트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세계 최정상 쿠투어인 '샤넬 하우스'의 고전적 진품이 되었고, 현대인들에게 클래식으로 애호되고 있다. 즉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었던 호화롭고 사치스런 장식의 구시대적 드레스 코드는 샤넬에 의해 전복되었고, 다시 샤넬의 드레스 코드는 새롭게 명문화되어 모던 패션의 전형이 되었던 것이다. 샤넬은 새로운 세기의 사회 경제적 요구와 변화된 생활방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으며, 새로운 건축물들과 산업제품만큼이나 기능적이며 모던한 패션의 장을 열어준 20세기 패션계의 선지자였다. 또한 그녀는 20세기에 일어날 사회적 성역할의 변화를 예견하고 패션을 통해 표현한 실천적 페미니스트였다. 남성복의 테일러링을 부드럽게 변형한 단순한 샤넬 수트는 남성이라는 타자의 '용시적 대상'으로서 또는 장식적 과시를 위한 패션이 아니라, 주체적 자아 실현을 위해 일을 하는 20세기 신여성의 간편하고 기능적인 패션관을 확립했던 것이다. 따라서 20세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1998년에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대표하는 100인 중에 샤넬이 패션디자이너로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20세기를 되돌아볼 때 샤넬은 '인체와 성,' '성과 패션,' '사회계층과 패션'에 대한 이슈들을 가장 명확하게 예견하고 표현함으로써 19세기말 모리스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가 추구했던 검소하고 기능적인 패션의 민주화를 창조해낸 핵심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30) Richard Martin & Harold Koda, Haute Couture(New York: Harry N. Abrams, 1995) p.27.

31) Jacqueline Herald, Fashion of a Decade: The 1920s(London: B.T. Bastford, 1991), p.12.

#### IV-4. 공상과학적 우주 패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미래 패션의 전형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걸쳐 형성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세계 경제공황의 사회적 상황하에서 더 이상의 혁신적 미래에 대한 비전 보다 답보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침체된 미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뉴욕 세계 박람회'가 1939년에 열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미래 지향적 패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보그>는 이 박람회의 일환으로 당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주역으로 부각된 소위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다음 세기의 미래 패션을 디자인해 줄 것을 의뢰했다. 당시에 미국 산업 디자인계를 이끌어가던 유명 디자이너 아홉 명(도날드 데스크Donald Deskey, 길버트 로드Gilbert Rohde, 러셀 라이트Russel Wright, 레이몬드 로워Raymond Loewy, 에그몬트 에렌스Egmont Arens, 월터 도윈 티그Walter Dorwin Teague, 조지 세키에George Sakier, 헨리 드레이퍼스Henry Dreyfuss, 조셉 플랫Joseph B. Platt)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 미래에대한 꿈을 과학적 논리에 근거해 흥미롭게 실험 했다.<sup>32)</sup> 그 결과 각각의 디자이너는 자신이 상상한 미래의 개념에 따라 아홉 점의 옷을 디자인했는데, 그들의 예측은 놀랍게도 상당 부분이 적중하여 1960년대 우주시대 패션으로 실현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20년대말 미국에 산업디자인이란 전문직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던 길버트 로드는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21세기 남성복을 디자인했다(그림 10). 그는 19세기 이후 여성복에 비해 개성이 없고 단조로워진 남성복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개념의 테크놀로지와 감수성이 결합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남성복을 제안했다.

로드의 21세기 남성 복장은 '솔로 수트Solo-suit'라 명명된 상하의 일체형 수트와 특수 조끼인 '플라스티베스트Plastivest'와 벨트와 안테나로 구성된다. 성가신 단추나 끈과 넥타이는 사라지고 간단한 지퍼로 여며지는 이 수트는 기능적인, 시간 절약형 의복이다. 또한 이 수트는 새롭게 발명된 특수 실로 편직되어 거의 세탁이 필요 없고, 세 가지 크기로 제조되어 번거로운 가봉 절차 없이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수트의 옷감에 혼합 편직된 베릴륨 전선은 냉온방을 위한 '오메가 파장'을 전달해 주어 온도 조절 기능을 갖는다. 옷의 색상은 이 베릴륨 동선의 도금을 변화하여 조절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손쉽게 변화되어 한 가지 옷으로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다. 수트 위에 항상 입혀지는 플라스티베스트는 투명한 플렉시글래스와 크롬 도금된 구슬 체인 조각들을 연결해 구

32) "Fashion of the Future: on 9 Following Pages Costumes by 9 Leading Industiral Designers," Vogue(February 1, 1939), p.71.



성되며 오매가 파장의 전달을 위한 기능과 전화 장치와 더불어 장식적 역할도 한다. 벨트에는 초경량의 장치가 붙어 있어 전선의 네트워크를 통해 솔로 수트를 테우고 식히는 오매가 파장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하이테크적 21세기 남성복과는 달리 덩수룩한 수염은 자연미를 위해 길러지며 장식적 개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향수 뿌린 가발을 사용해 다양한 머리색을 갖게되며 값싸게 성형되어 생산된 '일회용 팬티와 양말'은 세탁의 번거로움을 덜어 준다.

이와 같이 로드는 21세기 남성복에서 기능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는 바쁜 미래의 일상 생활을 표현했으며 합리성과 동시에 정서적 가치들을 통해 미래 남성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로드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덟 점의 옷에서 보여지는 공통적 특징은, 이념적 혁신에 중점을 둔 미래파 패션과 달리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명과 적용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30년대말 산업 디자이너들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철학적 이념과 미학에 관심을 가졌던 세기초 예술가들의 미래 전망에 비해 좀더 과학적 기술 진보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로드의 공상과학적 패션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탐험 경쟁을 하며 최초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고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디게 되는 눈부신 우주탐험이 이뤄진 시기였다. 우주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곧 우주여행을 하는 미래가 도래하리란 희망에 들뜨게 했으며 당시 패션은 우주탐험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앙드레 쿠레주,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 파코 라반Paco Rabanne 등의 디자이너들은 1960년대 우주적 새로운 패션을 유행시키는데 기여했다.<sup>33)</sup> 그들의 미니멀한 기하학적 형태의 짧은 튜닉과 우주복 헬멧같은 독특한 모자와 납작한 굽의 광택나는 부츠와, 쇠사슬, 플라스틱 조각과 같은 신소재 패션은 미래의 우주시대를 연상케했다(그림 11). 특히 쿠레주는 1964년 "우주시대" 컬렉션을 발표하여 1961년 소련의 우주선 스푸트니크Sputnik이 가능성을 열어준 우주여행 시대의 비전을 형상화했다. 그의 반짝이는 소재로 만들어진 밝은 색상의 단순한 미니 드레스와 팬츠 수트로 표현된 우주적 패션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상과학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의상의 전형이 되었다. 카르댕은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해 신축성 신소재와 플라스틱을 처음 옷에 도입하고 유니섹스적 캣수트catsuit와 레깅즈 위에 입은 타바드tabard와 원통형 드레스로 미래 우주시대 패션을 표현했다(그림 12). 라반은 패션에 플라스틱과 금속을 사용하여 번쩍이는

33) Valerie Steele, Fifty Years of Fashio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p.64-6.

플라스틱 원반 드레스와 쇠사슬과 플라스틱 조각을 연결한 중세 기사 갑옷같은 디자인으로 미래를 표현했다(그림 13). 따라서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하이테크적 신소재와 더불어 미래 담론 속에서 보여진 평등성과 기능성에 기초한 단순하고 활동적인 형태와 고전적 중세풍이 1960년대 최첨단 우주시대 패션의 이미지를 표현한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 IV-5. 미래학자 건릭

1930년대말 획기적인 <보그>의 21세기 패션에 대한 조망과 1960년대 중반의 우주 패션시대를 보내고 난 1970년초 미국의 대중잡지 <라이프Life>는 당시 가장 아방가르드한 미국 디자이너였던 루디 건릭Rudi Gernreich에게 미래 패션을 예견해 스케치 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이에 건릭은 1960년대말의 향수적인 히피 패션을 '현실 도피적 징조'라고 비평하고 "미래 의복은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그의 초기 경력이 무용가였다는 사실은 그의 디자인이 의복의 한계로부터 자유스런 동작을 위해 인체를 해방시켜주는, 즉 철저한 실용성의 법칙으로 향해갔음을 설명해준다.<sup>35)</sup> 더 나아가 그는 남녀의 신체를 성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이른바 '유니섹스적 미래상'을 패션으로 제시했다.

건릭에 따르면 미래의 남녀는 환경 오염에 따른 모발과 눈썹의 손실로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검정색의 헬멧 같은 '다이넬 Dynel' 가발을 쓸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그는 미래의 여성은 화장을 하지 않으며 보석도 착용하지 않고 남성과 똑같은 옷을 입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 남녀 모두는 두꺼운 니트로 된 '레오타드 leotard'와 방수 부츠를 착용할 것이며 여름에는 남성도 치마를 입게 되어 남녀가 치마와 바지를 서로 바꿔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14). 또한 신체 노출에 대한 금기가 사라져서 남녀 모두가 가슴을 노출할 것이며 투명한 의복은 편안하다는 이유로 입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의 악세사리는 실용적 이유로만 착용되어 벨트의 경우 옷을 지지하거나 올려주는 기능을 위해 사용되고, 기상 관측계와 라디오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손목시계는 갖가지 정보를 위해서 착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릭은 미래 패션 미학에 대해 신체 그 자체의 중시로 인해 신체를 가리기 보다는 드러내게 되어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6)</sup> 이런 건릭의 미래 패션관은 고

34) "Fashion for the '70s: Rudi Gernreich Makes Some Modest Proposals," Life (January 9, 1970), pp.115-8.

35) Richard Martin, Contemporary Fashion (New York: St. James Press, 1996), pp.195-6.

36) "Fashion for the '70s," pp.115-8.

미에가 디자인한 공상과학 영화 <제5원소>에서 신체 노출적 릴루의 간단한 '봉대' 복장 과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던 건리의 미래 예측은 3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으며, 많은 부분들이 수용할만한 개념으로 세기말 패션 속에 표현되고 있다. 최근들어 유명 패션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더욱 과감해진 노출, 성차가 적어진 옷, 신체에 밀착되어 기능성이 강조된 악세사리 등은 건리의 예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전 시대의 이념과 테크놀로지 지향적 패션과 달리 좀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과 환경 의식에 관심을 두었던 건리의 미래 패션은 1990년대 들어 패션의 중심 주제로 부각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재고찰 미리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리의 예측을 입증이라도 하듯 점차 보편적인 실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건리는 미래학자와 같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통해 구성한 가능한 가설적 미래 역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미래 패션을 제시했던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자는 인간이 추구한 미래상이 20세기 패션사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상을 담아내온 미래담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여기에서 묘사된 패션을 살펴본 후 20세기 패션사에서 표현된 미래 이미지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패션은 한 시대가 추구하는 미래관에 따라 변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인류가 꿈꿔온 미래에 대한 상상은 점술과 예언, 유토피아론, 공상과학 소설과 미래학을 통해 담론화되었고, 그 안에서 추구된 미래 패션은 20세기 미래지향적 패션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토피아론에서 나타난 이국적 이상향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과 테크놀로지에 의한 이상향은 20세기초 동양풍의 푸아레 패션과 샤넬의 '가난한 록'과 역동성을 중시한 미래파 패션속에서 추구되었던 이상적 미래상과 일치하였다. 공상과학적 미래담론 속에 표현되었던 첨단과학적 패션은 1930년대말 로드와 같은 산업 디자이너들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쿠레주나 카르텔, 라반에 의한 우주시대 패션으로 현실화되었다. 또한 디자이너 건리는 미래학자가 역사적인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현실성있는 미래 역사를 구성하고 미래를 예측하듯 변화된 미래 환경과 남녀 개념에 기초하여 타당성있는 미래 패션을 제

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20세기의 미래 패션은 세기말에 이르러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소위 해체주의 개념은 20세기가 만들어낸 패션 어휘들을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해체해왔다. 예를 들어, 90년대초 유행한 낡고 헤어진 듯한 '그런지 패션grunge fashion'이나 '재활용 패션'은 대량 산업시대의 획일적 비인간성에 대한 반발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금욕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표상으로 고귀한 빈곤의 미를 추구하는 '중세적 패션'이 물질문명에 대한 회의로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계문명과 도시화로 인해 소외되었던 시원적 문명에의 재발견을 시도하는 '민속풍 패션'과 소비문화 속에서 대상화된 성적 매력을 제거하는 '무성적 패션' 등 기존 의복 규범에 대한 해체가 세기말 패션계에서 뚜렷이 보여진 현상이었다.<sup>37)</sup>

그렇다면 새 천년 패션의 룩은 무엇일까? 해체주의 패션의 기수로 일컬어진 벨기에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가 언급했듯이, 이제 패션은 과거와 달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이념적 표현보다는 더욱 '작은'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중시<sup>38)</sup>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모든 인간의 역사적 형태들이 거대 담론이 아닌 작은 '과편성'에 근거한다는 비평이론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의 세계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sup>39)</sup> 근래에 기존의 유명 패션 하우스들은 획기적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을 수석 디자이너로 기용하여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 디오르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지방시Givenchy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루이 비통Louis Vuitton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에르메스Hermès의 마틴 마지엘라가 새 세기에 세계 패션계를 이끌고 갈 차세대 디자이너들로 지목받고 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획기적인 순간에 막대한 책임을 맡게 된 이들이 어떻게 21세기를 예측하고 도전하여 풍요롭게 만들어 갈 지는 눈여겨볼 일이다.

위의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20세기 패션의 역사가 다양한 미래관을 표명해 왔듯이 새 천년에도 누군가는 이전의 푸아레나 미래파, 샤넬, 로드나 건릭 등의 뒤를 이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션에 신선한 미래상을 부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패션은 현실에서 출발한 미래를 보는 눈이자 내일을 위해 오늘의 삶을 정의하는 문화현상으로서 인간이 공유해온 미래관을 끊임없이 재해석해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37) 김성복, "패션 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18권, 1994), pp.487-511.

38) Stephen Gan & Alix Browne (eds.), *Visionaire's Fashion 2000: Designers at the Turn of the Century*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1997), p.2.

39)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f Knowled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 참 고 문 헌

- [1] 김성복. "패션 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18권(1994), pp.487-511.
- [2] 전득주 외 공저. 미래학 입문. 서울: 평민사, 1992.
- [3] 하인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고도, 1995.
- [4] Canto, Christophe & Odile Faliu, *Le futur antérieur. Souvenirs de l'an 2000*. 김승욱(역), <인간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해 왔는가> 서울: 자작나무, 1997.
- [5] "Chanel, 1883-1971," *Vogue* (February 15, 1971) pp.76-9.
- [6] Crispolti, Enrico. "The 'Futurist Reconstruction' of Fashion," *Art/Fashion*. Germano Celant(ed.) Milan: Skira, 1996.
- [7] De La Hay, Amy. *Fashion Source Book*. New York: Welfleet Press, 1988.
- [8] "Fashion of the Future: on 9 Following Pages Costumes by 9 Leading Industiral Designers," *Vogue* (February 1, 1939), pp.71-2, pp.137-46.
- [9] "Fashion for the '70s: Rudi Gernreich Makes Some Modest Proposals," *Life* (January 9, 1970), pp.115-8.
- [10] Gan, Stephen & Alix Browne (eds.). *Visionaire's Fashion 2000: Designers at the Turn of the Century*.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1997.
- [11] Herald, Jacqueline. *Fashion of a Decade: The 1920s*. London: B.T. Bastford, 1991.
- [12] Hulten, Pontus. *Futurism and Futurisms*. New York: Abbeville Press, 1986.
- [13]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허창수(역), <멋진 신세계> 서울: 고려원 미디어, 1996.
- [14] Lista, Giovanni. *Futurism*. 정진국(역), <미래파> 서울: 열화당, 1988.
- [15] Lyotard, Jean-Franç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f Knowled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9.
- [16] Maeder, Edward. *Hollywood and History: Costume Design in Film*. London: Thames and Hudson, 1987.
- [17] Martin, Richard & Harold Koda. *Haute Couture*. New York: Harry N. Abrams, 1995.
- [18] Martin, Richard. *Contemporary Fashion*. New York: St. James Press, 1995.
- [19] Orwell, George. 1984. <1984년>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20] Ribeiro, Aileen. "Utopian Dress," *Chic Thrills*. Juliet Ash & Elizabeth Wilson(ed.)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n Press, 1992. pp.225-37.
- [21] Spindler, Amy M. "Coming Apart," *The New York Times* Sunday, July 25, 1993.
- [22] Steele, Valerie. *Fifty Years of Fash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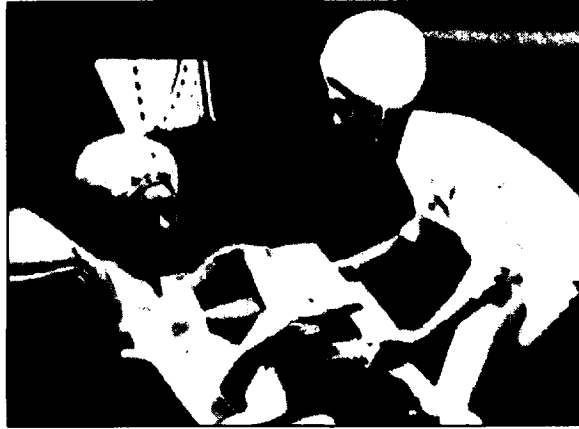


그림 1.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한 장면.  
패드 처리된 헬멧형의 모자와 단순하고 기능적인 팬츠 슈트.  
출전 : Edward Maeder, Hollywood and History : Costume Design in  
Film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7), p.100.



그림 2. 장 폴 고티에가 의상을 담당한  
영화 <제5원소>의 한 장면.



그림 3. 레온 박스트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세레자테Scheherazade를  
공연하는 러시아 발레단의 무용  
수들, 1910. 촬영자 미상.  
출전 :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rientalism : Visions of  
the East in Western Dress (New  
York : Harry N. Abarams, 1994).



그림 4. 1910년대 선풍적으로 유행한 폴 푸아레의 동양풍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델들, 1919. 촬영자 미상.  
출전 : Sara Bow, A Fashion for Extravagance : Art Deco Fabrics and Fashions (London : Bell & Hyman, 1985).



그림 5. 크리스찬 디오르의 1999년 봄/여름을 겨냥한 컬렉션에서 발표된 중국 인민복에서 영감을 받은 동양풍의 올리브 그린의 수트, 사진 : 적평순일.  
출전 : Mode et Mode, no.305 (January 1999).



그림 6. 자코모 발라, <자동차의 속력 Vitesse d'automobile>, 1912. 캔바스에 유채, 55.6x68cm.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그림 7. 자코모 발라,  
<남성 수트 스케치>, 1914.  
종이에 수채, 29x21cm.  
Collection Biagiotti Cigna,  
Guidonia.



그림 8. 포르투나토 데페로, <데페로의  
미래주의 조끼>, 1924, 채색한  
천과 실크, 52x45cm.  
Private Collection, M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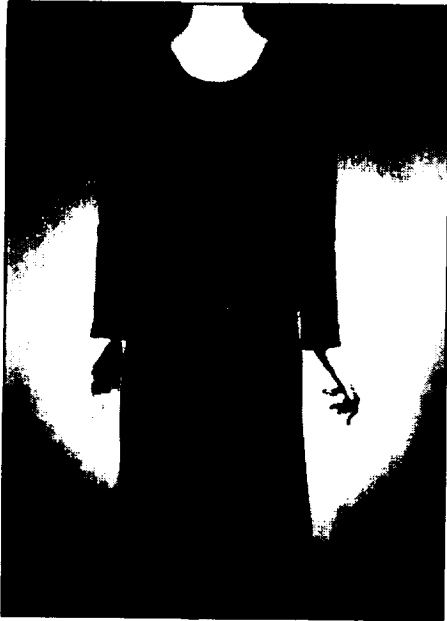


그림 9. 코코 샤넬,  
<양상블Day Ensemble>  
Karin L. Willis.  
The Costume Institut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그림 10. 길버트 로드의 21세기 남성복,  
촬영자 미상.  
출전 : Vogue (February 1, 1939).



그림 11. 앙드레 쿠레주의 A-라인 드레스와 부츠와 피에르 카르댕의 비닐 헬멧으로 1960년대 우주시대 패션의 예를 보여준다. 촬영자 : Irving Solero.  
출전 : Valerie Steele, *Fifty Years of Fashion* (New York : Yale University Press, 1997), p.48.



그림 12. 피에르 카르댕의 우주시대 남녀패션.  
출전 : Ruth Lynam, *Couture*, p.214.

그림 13. 파코 라반의 중세풍의  
플라스틱 '쇠사슬 갑옷'  
드레스, 1969.  
출전 : Valerie Steele, Fifty  
Years of Fashion (New  
York : Yale University  
Press, 1997),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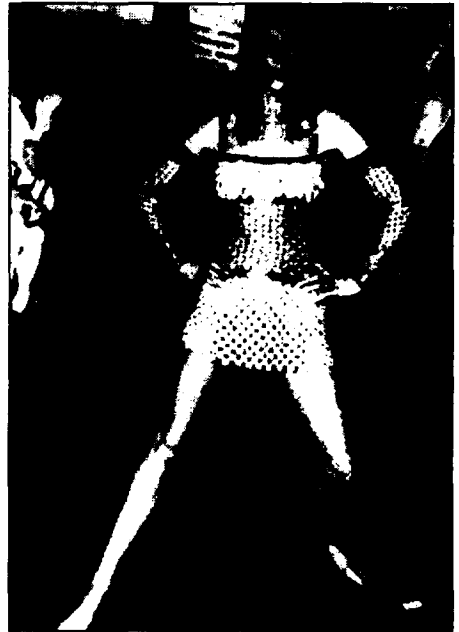


그림 14. 루디 건릭이 스케치한 미래 패션. 출전 : Life (January 9, 1970).